

종교교육학연구 제14권. pp.195~21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천도교의 양성적(兩性的) 인간관에 근거한 '호주제' 폐지

정 해 정

(동국대학교 강사)

《요약》

현재 법률상 호주제는 천도교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근원적 이해와 상반된다. 호주제는 인간 각자가 자기 안의 한울님을 실현시킴에 있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개성화와 주체화를 상징적으로 가로막는 것이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루어 다양한 삶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즉 호주제는 인간 각자가 내면적으로 兩性を 키우고 사회적 삶에서 남녀 모두가 한울님으로서 서로 한울님됨을 돕는 천도교의 양성적 인간관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는 고유의 전통사상에도 맞지 않다. 우리 전통 사상 안에는 성차별의 역사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를 인간으로서 평등하고도 존엄하게 대했던 전통도 있는 것이다.

※ 핵심 주제어 : 호주제, 호주제 폐지, 양성적 인간관, 천도교, 부인도통, 한울님.

I.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 의식 속에 뿌리박혀 있는 여성차별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이를 동조하면서 사회의 불평등을 묵인하고 있다. 여성을 상품화하는 문화를 즐기면서 남성 자신 역시 무의식적으로 여성을 상품으로 대하고 여성 역시 남성에 의존하는 것을 편하게 받아들인다. 여성차별은 인간차별이며 인간 억압이기에 범죄이다. 또한 여성 차별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인간으로서 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인간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인간으로서, 자기 성장의 권리와 자기 안의 한울님을 키워 나가는 인간 주체로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신

성한 몫이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지배와 여성을 종속과 열등의 위치로 만드는 사회관습으로 인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 이 본질을 상실해 가고 있다.

현재 법률상 호주제는 천도교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근원적 이해와 상반된다.¹⁾ 호주제는 인간 각자가 자기 안의 한울님을 실현시킴에 있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개성화와 주체화를 상징적으로 가로막는 것이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루어 다양한 삶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즉 호주제는 인간 각자가 내면적으로 양성(兩性)을 키우고²⁾ 사회적 삶에서 남녀 모두가 한울님으로서 서

- 1) 현재 호주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민주헌법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도로서 호주 계승의 순위가 부-아들-손자-여성의 순서로 매겨져 있다. 따라서 여성·시민사회 단체들은 그 폐지를 다음과 같이 주장해왔다.

‘헌법은 엄연히 양성평등의 이념을 명시하고 있으나 부계 혈통을 우선하는 잘못된 ‘호주제’가 여성들의 삶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말로는 호주가 이름뿐인 지위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호주제에 의하면 여성들은 늘 종속적인 가족구성원에 지나지 않는 현대판 삼종지도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근래에 혼인신고시 현행법상 남편을 호주로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낀 젊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고 나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또한 자녀들 역시 父家入籍을 우선으로 하는 까닭에 이혼이나 재혼으로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실제로 양육을 하는 어머니들이 자녀와 한 호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 자녀의 성씨는 아버지의 성을 아는 한에는 반드시 父의 성을 따르도록 한 강제조항을 없애고, 자녀 출생시 부부간의 합의 하에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혼·재혼가정에서 가족 간에 성씨가 달라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성씨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2002년 6월 27일 정부 여성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2007년까지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세계 60위권인 한국의 여성권한 척도를 2007년까지 30위권으로 올리기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한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나 호주제 폐지는 분명 폐지대상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 호주제는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인 지위로 규정짓고 있고,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키고 있어 호주제 폐지는 비켜갈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현행법은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아들딸 구별 말고 자녀를 낳자는 것이 국가 시책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런저런 여성정책을 내놓아도 현실에서 정책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때문이다. 여전히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인 존재로, 아내를 남편의 내조적 존재로만 보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관습의 정점에 호주제가 있다. 호주제는 부계혈통에 의해서만 대를 잇게 했고, 여성을 남성의 하위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아 선호 사상을 부추기고 여아 낙태라는 비인간적인 일이 자행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호주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는 사라진 지 오래다. 남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호주제는 더 이상 붙잡고 있을 명분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겨레》, 6월 29일자 27면).

로 한울님됨을 돕는 천도교의 양성적 인간관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는 고유의 전통사상에도 맞지 않다. 우리 전통 사상 안에는 성차별의 역사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를 인간으로서 평등하고도 존엄하게 대했던 전통도 있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유교적 가부장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유교 자체가 아무리 인간의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말한다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규범과 법질서를 남성 중심으로, 질서를 편성한 것³⁾이기에 현재에 있어서도 이를 자연스레 습관화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부분의 종교가 가부장적 중심의 표현을 경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 창시자가 성차별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사회조건상 남성의 권력 중심으로 종교 창시자의 사상이 선별적으로 수용되었을 뿐이다. 유교 또한 그러하다. 호주제 존치를 주장하는 가부장적 의식은 전통의 계승이라는 담론을 형성하고 그 전통을 유독 조선조 종법실시와 맞물린 유교적 가족제도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전통보다는 서구 근대성에서 찾고 있다.⁴⁾ 그러나 우리 전통 속에는 조선초기에 종법제가 실시되기 이전 사회에 있어서도 양성적 전통은 있었던 것이다.⁵⁾ 현재의 양성평등의 보다 민주화된 관행도 이러한 전

2) 특히 K.G.Jung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 내부에 있는 異性性을 인식하여 여성의 원리와 남성의 원리가 균형있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이성성이 발달될 때, 전체를 상징하는 자기원형이 출현하여 통합된 자아를 가능하게 한다.(C.S.Hall & V.J.Nordby, 최현 역, 『융심리학 입문』 (서울: 범우사, 1985), 63쪽).

3) 유교의 가부장질서는 家중심적 농경사회의 산물로서, 사유재산제도의 정착과 재산상속의 승계를 둘러싼 남성위주의 계급질서로 재편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종족간의 질서유지가 가세해서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宗法制와 씨족기구는 周代에 와서 바로 이러한 가부장의 사회적 조건에서 발생한 것인데 宗이란 남계혈통 중심 사회에 있어서 同祖同姓의 혈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광호, 「古代 宗法制的 社會史的 意義」, 인천: 인하대학교, 《人文科學研究所論文集》 7, , 1981.12, 233쪽). 그러므로 종법이란 고대 중국에서 비롯된 친족집단 혹은 제사 상속 즉 가계 계승의 전통에 대해 후대사람들이 붙인 명칭이다. (이영춘, 「종법의 원리와 한국 사회에서의 전통」, 서울: 한국사회사학회, 『가족과 법제의 사회사』 (서울:문학과 지성사, 1995), 11쪽).

4) 양현아, 한국 가족법에서 읽은 세 가지 문제, 한국사회사학회, 『가족과 법제의 사회사』 (서울:문학과 지성사, 1995), 110쪽.

5) 종법제 이전의 중국사회도 여계혈통 중심의 모계사회 내지는 모권사회적 흔적이 상당한 비중으로 남아있었다. 즉 은대에는 先公, 先王을 제사한 기록보다도 先妣(亡母)들을 제사 지낸 기록이 훨씬 많고 역경의 賁卦에 의하면 女酋長도 존재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정광호, 앞의 책, 239쪽).

통의 페미니즘적 친화력이 가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호주제 형성의 간략한 고찰만으로도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⁶⁾로서 전통개념의 것이 아니며 호주제 존치를 주장하는 가부장적 의식의 조선성리학은 전통의 일부에 불과하다. 성리학이 우리사회를 지배한 것은 오천년 역사에 있어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보다 오래된 우리 전통의 역사에는 양성적(兩性的) 전통이 크다. 한국 전통 사상에는 성차별적 관습과 양성결합(미분리) 또는 양성평등적 전통이 공존한다. 전통은 계승되어야 할 것과 파기되어야 할 것을 구분하여 역사발전의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

동학과 천도교는 바로 이러한 양성적 인간관의 전통을 계승하여 남녀노소 빈 부귀천 할 것 없이 인간 모두가 자신의 한울님을 깨달아서 한울님을 섬기고 한울님으로 살라고 한다. 한울님으로 산다는 것은 우주만물이 모두가 한울님의 표현이기에 생명공동체를 실천하는 것이고 특히 최영자(最靈者)인 남녀 인간을 한울님으로 모신다는 말이다. 동학·천도교가 유(儒)·불(佛)·선(仙) 삼교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각기의 단점을 극복한 것은 전통의 계승과 파기 및 비판을 수행했기에 가능하다. 현재의 우리 시점에 있어서도 성차별의 온상이 되는 유교적 차별의식은 비판되고 성리학을 포함한 유교가 갖는 긍정적 사상은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전통 속에서의 양성결합(미분리) 및 양성평등적 전통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 계승한 천도교의 양성평등 사상을 고찰하여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호주제에 근거한 성씨 부여는 긴긴 시간동안 수많은 모계측의 계통을 배제한 것이고 사람마다 출신지와 본을 물어 타인과 동족을 선별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인간차별의 악습이다.

II. 성차별의 기원과 양성적(兩性的) 인간관의 전통

1. 성차별의 기원과 종교

우리는 어느 특정한 성을 주축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역할의 기회를 확대하는

6)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II), 서울: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호주제 폐지와 대안 모색을 위한 대 토론회 자료집」, 서울: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2000.10, 28-41쪽.

기존 사회들을 깨고 양성 모두가 똑같은 권리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즉 양성(兩性) 모두를 위한 제도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의식의 저변에는 내면적으로 양성적 의식을 갖고 외면적으로 양성의 자유와 성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인간이해가 있다.

양성평등적 인간이해는 자신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을 함께 길러가고자 하는 것이고 권력적 물질적 평등만이 아니라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인간으로서 각자의 몫을 살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래의 사회는 모권이냐 부권이 아니라 양성권으로서 발전되어 가야 한다. 이는 역사 발전의 흐름이기도 하다. 인간의 양성관계가 성분리와 여성차별로 이어진 것은 인류역사에 그리 오래 전 일은 아니다. 또한 모계이든 부계이든 특정 성 중심의 역사와 양성결합적 전통은 공존하면서 변모되어 왔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초기에는 무규율적인 난혼생활을 하였었고 이러한 관계는 아버지를 확정할 온갖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혈통은 모계의 모권에 따라서만 따질 수 있었고 그 결과 여자는 어머니로서 즉 젊은 세대에게 확실히 알려진 유일한 부모로서 높은 존경과 신망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서 완전한 여성지배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점차 사회변화에 따라 난혼에서 일부일처제로, 또 모권에서 부권으로 발전하는데 특히 그리스인의 경우는 종교적 관념에 따른 결과로 앵겔스는 본다. 즉 남녀 상호간의 사회적 지위에서 역사적 변천이 일어난 것은 사람들의 생활 조건들이 사람들의 두뇌에 종교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여성 억압의 발생, 기원에 대한 앵겔스의 설명은 원시 공산사회의 붕괴와 계급사회(노예제 사회)의 발생이라는 것과 맞물린다. 평등사회에서 억압사회로 변질되는 과정 속에서 양성간의 관계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 사회에서 양성관계를 규정해왔던 기본규칙이 혼인규칙(가족)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양성관계를 변질시키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양성간의 관계변화는 구체적으로 '가족의 형태변화, 성적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억압적 일부일처제 가족의 발생이 바로 그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여성억압의 발생은 일부일처제 가족의 발생과 일치한다.⁸⁾ 여성억압이 '가족'에 의해 매개되어 발생하는데 원

7) 앵겔스, 김대웅 역, 『가족의 기원』 (서울:아침, 1985), 10-11쪽.

8) 일부일처제는 확고한 남성우위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남성이 축적해 놓은 재부를 상속하

래 계급발생 전의 원시사회에서 가족은 사회의 능동적 구성원리였다. 엥겔스가 부권전복을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라고 한 이유는 여기 있다. 씨족제도가 경제적 임무를 다하고 이제 그것이 부권에 기반한 가족에게 넘어가자 남성은 가족내에서 지배자가 되고 여성은 남성의 성욕의 노예, 자녀 생산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전락한다.⁹⁾

그리고 점차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면서 가정의 담당자인 여성과 직업세계에 종사하는 남성으로 그 역할이 이원화되는 것이다. 즉 남성은 공적, 생산적 영역에 여성은 가정에서 사적, 재생산적 영역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화되게 된다. 또한 물질 토대로서 생산영역이 중시되고 공식화됨에 따라 이 부분에 종사하는 남성이 더욱 중시된다. 성별이원론에 따른 차별화 현상은 가부장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각기 전통적으로 규정된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을 서로에게 요구하며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부장적 사회 조건의 반영은 종교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고등종교가 여성을 열등하게 취급하는 대목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성 자체가 성불하기 어렵고, 혹은 군자가 되기 어려우며 또한 인류에 죄의 기원을 가져다 준 존재로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경우 구약성서를 보면 여자는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요물이며 뱀의 꾀임에 속아넘어갈 만큼 도덕적으로 무력하고 하나님에 의해 금지된 나무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인류를 죄의 길로 인도한 죄인이다. 여성은 악의 근원으로 취급되고 여성은 더러운 존재이며(레위기 12:2-5) 여성은 열등한 존재이며(전도서 7:28) 또한 아브라함 족장설화를 보면 여자는 가문계승의 도구로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남자의 재산목록(사사기 11:13)으로서 임의 처분하는(사사기 19장, 창세기 19: 4-9) 사건들이 보여진다. 이러한 가부장제 사회와 전통을 배경으로 남자들은 여자들의 성향을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하여 여성을 억압하였고 여자들은 별다른 저항도 없이 이런 해석과 비판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성을 비하하였다.¹⁰⁾

기 위해 부권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혼인은 쉽게 파기할 수 없었으며 여성은 정절을 강요당하였다. 그러나 일부일처제는 처음부터 '여성들에게만 일부일처제'인 것 다시 말해서 남성의 축첩이 언제나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노예제로 인해 여자노예들이 손쉽게 남성의 소유물로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9) 홍찬숙, 엥겔스의 여성억압분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8, 참고.

불교 경전 역시 여성은 부정(不淨)한 것이고¹¹⁾ 여성은 악하며,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¹²⁾고 하는 남성종교로서의 전형을 과시하는 부분이 있고 천도교 또한 여성의 역할을 가사와 육아에 한정시키는¹³⁾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 모두 사회가 빚어내는 시대적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차별적 기표는 그당시 사회상황에 따른 남성권력의 산물이고 종교가 지배계급에 혹은 가부장적 체제에 적용되면서 더욱 여성의 속성을 차별적으로 고착시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진정한 종교정신이라기보다는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종교 또한 그 사회에 영향 받지 않을 수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종교 경전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 기초한, 양성적 인간관을 사상적으로 갖추지만 이와 같이 성역압적 측면도 보이고 있다.

한편 가부장의식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유교¹⁴⁾의 경우를 보면 종교 중 가장 가부장적 의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전혀 양성적 요소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주역도 성차별의 근원은 아닌 것이다. 『주역』에서 건괘(乾卦)[乾爲天]와 곤괘(坤卦)[坤爲地]는 각기 하늘의 도와 땅의 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모두가 군자가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인간수양의 목적이 군자에 있다면 군자 자체가 건곤, 음양, 남녀의 도를 모두 갖춘 자로서 양성적 인간이해를 표현하고 있음이다.

10) 이우정, 『여성들을 위한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68쪽.

11) 『相應部經典』, 팔리원전협회본, 권1, 38쪽(田上太秀, 『佛教と性差別』 (東京: 東京書籍株式會社, 1992), 45項, 재인용.

12) 田上太秀, 위의 책, 73쪽.

13) 『해월신사법설』, 婦人修道.

14) 유가 경전은 건곤-천지-양음-남녀-존비의 등식화에 따라 남녀를 규정한 역경을 비롯해 시경에는 “똑똑한 남편은 賊을 이룩하고 똑똑한 부인은 성을 기울어뜨린다. 아름답고 똑똑한 부인이여 올빼미가 되고 부엉이가 되도다. 부인의 수다스러움은 재해를 불러들이는 계제일진대 어지러움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부인 스스로 만든 것이리라” 하였다 (『시경』, 대아, 첨양) 그리고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게서도 여성에 대한 부정적 관념은 그대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소인의 생각과 행동은 여자와 같다. 여자는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굴모습을 예쁘게 꾸미려는 것에 지나지 않아 머리에는 가발을 쓰고 낮에는 분과 기름을 바르는데 이는 자기 눈에 들게하려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이다. 남들이 이 모습을 보고 모두 예쁘다 칭찬하고 부러워하면 아양떠는 웃음과 부드러운 말씨로 앞뉘를 재면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큰 수치로 생각한다.”, 『성호사설』, 小人意態)

건(乾)은 원기가 크게 형통하는 때이다. 마음을 끈고 바르게 가져야 이롭다. 건의 원기는 크도다. 모든 물건이 그것에 의하여 비롯되니 바로 하늘의 도를 포괄함이다... 천체의 운행이 강건하다. 군자는 스스로 쉬지 않고 힘쓰는 것이다. ... 곤(坤)은 크게 형통하는 것이며 암말은 끈고 바를 때 이롭다... 곤의 원기는 지극히 크니 그것에 의해 만물이 생성된다. 하늘의 도를 순순히 이어받는 것이다. 땅은 두텁고 넓어서 물건을 싣고 있는 덕이 한정 없이 합치되고 크게 빛나서 개개의 사물이 통한다. ... 유순하면서 이롭고 끈음은 군자가 행하는 것이니라... 학습하지 않더라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지도(地道)가 빛남이다.

즉, 군자는 인간 내면의 양성성을 말하는 것으로 건과 곤의 도를 통합시켜갈 때 군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녀음양설은 상호보완적인 동등한 가치체계를 갖는 것으로서 동중서가 군신(君臣), 남녀, 장유의 신분으로 서열화시킨 것은 본질에 어긋난다고 본다. 왜냐하면 주역의 핵심은 '역(易)'이라는 것에 있고 이는 차면 기울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변하는 변역(變易)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주역, 번사상전(繫辭上傳)에서는 음양의 결합관계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생물에게도 건 즉, 남성적인 것과 곤, 여성적인 것이 있다. 건은 시동을 맡아하고 곤은 그것을 받아 완성으로 이끄는 일을 한다. 그 경우 건은 쉬운 방법으로 시동을 행하고 곤은 간편한 형태로 그것을 받아 들인다. 따라서 한 쪽은 쉽기 때문에 시동이 지체없이 행해져 곤에 대한 진취력을 가지며 다른 쪽에서는 간편하기 때문에 상대의 작용을 저항없이 받아 들여서 완성을 향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건의 작용은 영속하고 곤의 작용은 확대된다. 이 영속성이야말로 현인의 덕성의 특색이며 확대성이야말로 현인의 덕성의 특색인 것이다. 사람은 쉽고 간편한 데서 우주의 근본원리를 체득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 천지와 나란히 하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인간 내면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있어 진취력의 영속성(건)과 완성의 확대성(곤)을 갖춘자가 현인의 특성이다. 인간은 이 양성을 통해 우주의 근본원리를 체득하고 천지와 나란히 하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2. 한국 전통역사에 있어서 양성적 인간과의 전통

한국 고대사회 초기에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제사장 혹은 군장(君長)직을 맡고 있었고 제사의 대상이 주로 여산신(女山神)이었음을 본다. 종교관념의 변천에 있어서도 대립보다는 상호 습합에 따른 변천에 의해 여성역할이 규정되어 갔다. 물론 조선시기에 들어오면 타협의 여지가 없이 여성억압이 고질화되었지만 그 축은 인간이 신에 합치되고 혹은 그 절문(節文)에 맞춰지는 관행 속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규정되었을 뿐 고대 초기에 여성과 남성이 함께 지향하고 함께 누렸던 신에의 합치는 계속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는 한국사의 전통에는 양성결합적 인간관이 애초부터 형성되었던 것임을 보게 된다.

태초에 인류는 주재자를 상징하여 하늘이나 산은 신의 전당이 되고 해와달, 별, 바람, 비, 우뢰, 천둥, 삼림과 천택(川澤)은 신의 행정으로 연상되고 다시 그 신은 인격으로 설정되었다. 차츰 인간의 철학적 사고에 따라 만능적 신권(神權)이 인간의 구체적 인물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게 되었다. 『서경(書經)』 우서(虞書), 고도모(皋陶謨)와 태서일문(泰誓逸文)을 보면¹⁵⁾ 민중을 대표하여 천신을 대신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여 백성으로부터 총명함을 보아 하늘의 총명함을 알고 백성의 위엄으로부터 하늘의 외경스러움을 알며, 또한 백성이 보는 것으로 하늘의 보는 것을 알고 백성이 하고자 하는 바에 하늘이 따른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신을 대신하는 하늘의 아전(天吏), 하늘의 혈손(天孫)의 역할이 무격(巫覡)으로서 이는 남녀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모두 하늘에 제사하고 인간 삶을 인도하는 정교(正敎)합일의 제사장이다. 중국 역사서인 『국어(國語)』 「초어」에서 권사부(觀射父)가 한 말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옛날에 민중 가운데에 정(精)이 밝고 순일하여 잡됨이 없고 또한 능히 정제 엄숙하여 정성되이 바르면 상하의 율음을 안다. 그 성스러움이 능히 멀리까지 선명하게 빛을 비추고 그 밝음이 밝게 빛난다. 그 총명함이 능히 밝음을 듣는다. 이와 같은즉 신이 내린 것이다. 남자에게 내리면 격(覡)이라 하고 여자에게 내리면 무(巫)라 하니 이로써 신의 위치를 만들고 다음은 군주가 되는 것이다.¹⁶⁾

15) 『書經』虞書, “天聰明 自我民聰明 天明畏 自我民明威 天視 自我民視 天聽 自我民聽 民之所欲 天必從之”.

이와 같이 고대의 정치는 신을 위한 것에 있고, 민중가운데서 순일하고 총명 성지(聖智)한 남자는 격(覲)이 되고 여자는 무(巫)가 되어서 신의 강령을 받고 신사(神事)를 주장하였다. 그가 곧 군주격(君主格)이 되고 선성(先聖)의 후예인 것이다. 이는 남녀의 역할이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하늘의 이치에 따르고자 신을 제사하고 만사를 복되게 하고자 했다. 최남선은 『아시조선(兒時朝鮮)』에서 말하기를

고대사회의 주장(主張)은 영적(靈的) 자격의 우성한 자를 추재하는 법이요, 그래서 신인(神人)-무(巫)가 법속(法俗) 양방의 주권을 겸집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무당은 여자가 주장이매 고대의 군장(君長)은 대개 여성이었던 것이요 후세까지도 여군(女君)이 국정을 맡음이 이 유풍을 지킴인데 교정(敎政)이 갈라진 뒤에도 교적(敎的) 방면의 요임(要任)은 의연히 여자가 담당하게 되어...¹⁷⁾

라 하여 한국 고대사회의 군장은 여자로서 신내림에 남자보다 더 능력있는 여자에게 무당으로서 신인(神人)의 자격이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역사에 있어서 고대사회는 무격(巫覡)들에 의한 제사와 교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씨족사회가 해체되면서 고대 국가가 형성되어 가고 불교 수용에 터한 가부장적 체제정비가 점차 강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국유사를 보면 산신들인 여신(女神)들의 무(巫)적 세력과 불교가 서로 갈등도 일으키고 수용 보완해 가면서 불교에 습합되어 가는 과정을 또한 보게 된다. 결국 이러한 양성 미분리의 무교적 특성은 외래 종교 속에 스며들어 원형을 유지해 가는데 조선시기의 억무(抑巫) 정책 하에 천대받으면서도 무교는 어머니에서 딸 혹은 며느리로 전승되어 갔다.

문헌적으로 고대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가부장적 국가체제 정비가 이루어지던 삼국시대에는 그나마 차별화가 덜 이루어진 듯한 모습을 보게 된다. 『당서(唐書)』 신라편을 보면

16) 『國語』 楚語, “古者民神不雜 民之精爽 不携貳者 而又能齊肅衷正 其知能上下比義 其聖能光遠宣明 其明能光照之 其聰能聽徹之 如是則明神降之 在男曰覲 在女曰巫 是使制神之處位次主”.

17)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최남선전집(문화편)』 (서울: 현암사, 1975), 180쪽.

남자는 거친 털로만든 바지를 입으며 여자는 긴 치마를 입었다. 사람을 보면 반드시 엎드려 손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공경의 뜻을 표하였다. 여자들은 분을 바르거나 눈썹을 그리지 않았으며 아름다운 모발을 머리에 서리며 구슬과 비단으로 장식하였다. 남자는 머리를 잘라서 팔고 검은 수건으로 머리를 가렸다. 저자에서는 여자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하였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보면 엎드려 손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공경하였다'라는 기사를 보면 계급이나 성별에 따른 인간차별보다 인간자체에 대한 존중정신이 강했음을 보는 것이다. 또한 『주서(周書)』에 나타난 고구려에 대한 기사를 보아도 남녀간에 혹은 친하고 멀고 간의 차별이 없이 생활을 하고 여신과 남신을 함께 믿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불법을 공경하여 믿었으며 더욱 잡다한 신을 믿었다. 그리고 신묘(神廟)가 있었으니 그 하나는 부여신으로 나무를 깎아 부인상을 만든 것이며 또 하나는 등고신(登高神)인데 고구려의 시조신이며 부여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주서(周書)』, 고려)

또한 백제도 남녀 귀천을 따지지 않고 가무를 좋아하고 청결함을 좋아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가가 형성되기 전 고대 초기는 양성 미분리의 사회로서 신이 내린 남녀가 무격이 되어 제사와 만사를 주관하고 역할에 있어서 그렇게 차별이 없었다. 실생활에 있어서도 남녀를 귀천으로 서열화하지 않고 함께 인간으로서 존중하였다. 그리고 차츰 국가체제가 정비되어 가는 중에서 여성은 정치에서 밀려나고 전쟁과 생산에 있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남성 중심의 체제하에 여성은 부속물로서 종속되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마가렛 미드는 여성이 남성의 일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참여결여에서 성차별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삼국시대에 있어서도 여왕이 있었고, 승관에 여자가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차츰 여자가 가정 이외의 일을 하는 것에 억압이 가해져 갔다.

그러나 조선의 성억압기를 지나 근대에 들어오면 동학의 양성평등사상, 천주교와 기독교의 전래, 개화사상가의 사회인식 등으로 유교적 가부장제의 사회질서가 새로운 윤리관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세상에 불쌍한 인생은 조선 여편네니 우리가 오늘날 이 불쌍한 여편네들을 위하여 조선 인민에게 말하노라 여편네가 사나회보다 조금도 낮은 인생이 아닌대 사나이들이 천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나회들이 문명개화가 못되어 이치와 인정은 생각지 않고 다만 자기의 팔심만 믿고 압제하려는 것이니 어찌 야만에서 다름이 있으리요 ... 우리는 부인네들에게 권하노니 아무모쪼록 학문을 높히 배워 사나이들보다 행실도 더 높고 지식도 더 넓혀 부인의 권리를 찾고 어리석고 무리(無理)한 사나이들을 교육하기를 바라노라 (독립신문, 1896.4.21)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도 낮은 인생이 아닌데 남성이 여성을 천대하는 것은 남성이 문명개화가 못되어 자기 팔심만 믿고 압제하려는 것이다’라는 인식하에 여성이 학문을 배워 남성보다 행실을 높이고 지식을 넓혀 남성을 교육하라고 각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문명의 척도가 약자와 여자, 어린이를 대접하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¹⁸⁾ 양반과 상민, 적서와 남녀의 차별에 인간 심성이 뒤틀려지고 썩어졌던 당시 시대상황에 이러한 개화적 인식은 신선한 샘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근대시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식은 여성인격에 대한 존중이라 하겠다. 박은식도 남녀 모두가 상제의 자녀로서 그 지각을 차별 없이 받았다고 말한다.

大抵 人生之初에 一男 一女는 均히 上帝의 子女라 其性分上 智覺을 稟賦함이 原無差別인즉 職分上 權能이 엇지 優劣이 有호리오¹⁹⁾

그러나 이 시기 조선의 여성들은 조선사회의 성역압적 상황에서 자신의 존엄을 눈뜨기 시작하였을 뿐 남성적인 특성과 역할들을 자기 안에 결합하여 남성과 함께 주체적으로 세계를 건설하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종전의 성분리적 차별에 터한 역할분리는 여전히 존속하였다. 현대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유가적 여성관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성이 성분리적 차별사회에 길들여져 여전히 여성이 주체적으로 세계를 보고자 하는 의지는 많지 않다. 여성이 남성의 부수적인 존재로 있을 때 가장 여성답다는 가치가 여성을 인간화시키지 못한다는 점, 또한 여성 개인의 존엄성을 유보시킨다는 점이 인간 본질의 근본이념에서 벗어남을 절감해야 한다. 양성결합으로 시작하였던 인류역사가 여성과 남성으로 분리

18) 《독립신문》, 1896.9.29.

19) 박은식, 「여자보통학원유지회취지서」, 《여자기남》 제1권 제1호.

하여 성억압을 점철해 왔던 성억압의 역사는 이제 양성 결합과 양성평등관으로 보다 평화롭고 완성된 세계와,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I. 천도교의 양성평등적 인간관과 여성운동론

한울님 하신말씀 너도 역시 사람이라
무엇을 알았으며 억조창생 많은사람
동귀일체 하는줄을 사십평생 알았더니. ...
현숙한 모든군자 동귀일체 하였던가(용담유사).

우주생명은 한울님의 표현이요 억조창생과 모든 인간이 동귀일체의 한울님이 라는 천도교의 시천적(侍天的) 인간관²⁰⁾은 흠과 같은 무정물에서도 존엄을 감지케 한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한울님을 모신 시천자(侍天者), 무궁자(無窮者)로서 양성 모두가 한울창조의 역사적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천도교의 양성적 인간관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인간존엄과 권리를 지닌 인간주체로서 이해하는 인간관이다. 여기서 양성적이란 용어의 의미는 인간 내적인 양성과 외적인 양성 모두를 취하는 것이다. 내적인 면의 양성성이란 주역적으로 말하면 음과 양의 통합, 음의 표현으로 하면 각자가 갖는 이성성(異性性)[아니마, 아니무스]의 구현, 천도교로 말하면 자기 내면 안에서 여성과 남성을 한울님으로 받드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양성적 인간은 외면적으로도 양성적 평등을 구현한다. 인류역사에 있어서 인간 내면의 양성성이 분리되기 시작하였을 때 성차별의 관습과 제도가 맞물렸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내면적, 외면적 양성성은 동시에적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천도교의 인간관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천도교가 근거하는 인간관에 의해 호주제의 시대착오적 모순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월선생은 일찍이 “부인수도는 우리 도의 근본”으로 부인수도를 장려하였다. 앞으로는 부인도통이 많이 날 것이고 과거에는 부인을 압박하였지만 지금의 때

20) 정혜정, 「동학에 나타난 侍天의 인간관과 교육이념」, 서울: 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 9, 2001, 참고.

를 당하여서는 부인 도통으로 사람 살리는 이가 많으리라 하였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누리지 못하던 과거의 여성은 이제 자기 안의 한울님을 자각하여 후천개벽의 주체로서 광제창생의 주역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사람이 어머니의 포태 속에서 나서 자라는 것과 같다 하였다.²¹⁾ 한울님인 여성은 자궁 속에서 육체적 생명을 키우고 도통(道通)으로 한울님을 키우며 인간 모두를 한울 백성으로 낳았다. 여성은 분명 종족번식의 수단이나 남성에 종속된 자가 아니다. 양성 모두가 여성이 낳은 한울님을 공경할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

이 세상 사람은 다 한울님이 낳았으니 한울 백성으로 공경한 뒤에라야 가히 태평하다 이르리라.²²⁾

이러한 동학의 양성평등적 인간관을 계승한 천도교는 일제 강점하에서 6개 부문의 사회운동을 벌였고 그 부문의 하나로 여성운동을 펼쳤다. 특히 여성잡지의 발간을 통해 양성평등의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는데 천도교에서 발행한 <부인> 지와 <신여성> 지에 나타난 여성운동론을 살펴보면 진보된 양성평등 의식을 접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신여성론이 그것이다. 천도교의 이 당시 여성론을 보면 '신여성의 새바람'이 불면서 구(舊)여자와 신(新)여자에 대한 개념정의가 시도되고 있는데 신여자란 '남자나 여자나 꼭 같은 사람이요 꼭 같이 신성하여 권리와 의무도 꼭 같다는 인식 하에서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고 구속할 것도 없는 인간으로서의 여자'를 의미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신여자란 모든 실력을 얻어야 하고 지식과 도덕, 생산과 살림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에까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할 일, 사람으로서 누릴 권리, 사람으로서 받을 행복을 다하고 누리며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과 실행이 있는 여자라야 신여자라 했다. 반면 구여자란 아무 권리가 없고 아무 자유가 없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자로 이해되고 있다.²³⁾ 이는 근본적으로 민중에 기초하고 남녀를 떠나서 사람 그 대로의 본능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민중적, 사람중심주의의 입장에서의 여성관이다. 천도교는 잡지 <부인>을 발간하면서 다음과 같이 취지를 밝히고 있다.

21) 『해월신사법설』, 婦人修道.

22) 『해월신사법설』, 布德.

23) 춘파, 「신구녀자에 대한 나의 의문」, <부인>, 1923.4.

부인은 어디까지 민주적이되다 어떤 계급을 표준하여 거기에 충족이 되겠다함은 결코 본의가 아니되다. 천하의 부인으로 더불어 꼭 같이 잘살기를 주장합니다. <부인>은 철두철미 사람중심주의이되다 남녀간을 초월한 우에서 사람그대로의 본능을 그대로 표현하며 사람 그대로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행사하려합니다.²⁴⁾

천도교는 여성을 사람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케 하고 사람 그대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는 존재로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본위의 여권운동도 역시 인간 무궁성 즉 한울님성의 발현이라는 차원에서 일어났다.

과거의 여권은 너무나 침해를 받은데서 너무나 압박을 받은데서 그 침해와 압박을 아니받고 자유로 신장하며 자유로 행사하는데서 사람성을 그대로 표현하는데서 여권운동은 일어났습니다.²⁵⁾

과거 여권은 침해와 압박이 극심하였으나 이제 침해와 압박을 받음 없이 자유로 신장하고 자유로 행사하는 인간성의 표현을 위함이 천도교가 추구하는 여성운동의 방향이다. 따라서 여성의 임무는 종래의 습관과 제도와 맞서 싸워 나가는 데 있다 하였다.

오늘 여자가 진실로 종래의 도덕에서 또는 습관에서 또는 제도에서 해방되기를 요구하느냐, 만일 요구한다할 것 같으면 이것은 빈 말로 될것도 아니요, 누구의 은혜적 구원으로써 될것도 아니요, 오직 요구한다는 그자신들이 다같이 팔뚝 걷고 신들메고 나서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적어도 우리시대의 여자는 종래의 값 없던 부지런을 새로히 값이 있을 부지런으로 바꾸어 만들기 위하여 싸우다가 죽을 사람이나 하는 정신쯤은 가지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²⁶⁾

여자가 종래의 도덕과 인습과 제도에서 해방되길 원한다면 이는 빈말로 되는 것이 아니요 누구의 은혜로 될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직 자신들 스스로 투쟁

24) 《부인》, 1923.5.

25) 박달성, 「사람본위와 여권운동」, 《부인》, 1923.5.

26) 김기전, 「당신에게 자기변민이 있습니까」, 《신여성》, 1924.7.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계산 밑에서 살아왔다. 자기의 평생을 남자를 위하여 단장하고 마음을 팔아 이렇게 몇 천년을 살아온 결과 성격상으로 겉과 속이 같지 못한 이중성격을 갖게 되고 생활상으로 남의 계산 밑에서 어물거리려는 거지생활을 배우게 되었다 한다. 먼저 여자된 사람은 종래의 또는 현재 자기가 가진 심리와 생활 근본의 잘못된 점을 분명히 의식하고 여기에서 스스로 죽을 지경에 빠지는 자기번민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신여성〉은 여자들이 직업방면으로 많이 나가야 할 것을 주장한다. 직업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사람의 성인이 되기까지에 통과해야만 되는 한 계단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맘으로 자기의 생활을 하여가는 곳에서 예측 생활을 벗어나고 참된 생활의 흥미도 느끼게 된다. 독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는 외부로부터 받는 어느 자극에 대항할 능력도 없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신여성〉지는 A.베벨의 『여성론』을 실어 여성운동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집안 일을 돌보고 아이를 낳는 것이 부인들의 유일한 천직이라는 주장은 마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늘 국왕이 존재하였음으로 언제까지든지 국왕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주장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모순된 말이라 한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인을 평등한 권리의 소유자에서 제외하려함은 종교와 정치상의 의견여하로 만인이 꼭 같이 가져야할 권리와 특권을 주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A.베벨은 장차 계급이 계급을 착취하고 성이 성을 지배하는 낡은 사회는 영구히 소멸되고 여자는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남자와 완전히 평등한 지위에 서게 될 것이라 하였다. 남성 중심의 윤리와 도덕은 완전히 소멸되고 정조는 참으로 사랑의 표현이 되어서 애정이 계속되는 기간에서만 남자는 여자에게 대하여 여자는 남자에게 대하여 스스로 지키게 될 것²⁷⁾이라는 것이다.

한편 김명호는 현대여성의 수양을 말하면서 “짐승처럼 사육 당하는 과거의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라, 자존의 감정을 기르고 생각을 자유롭게 가지며 물질적 실력과 정신적 실력을 길러 무섭게 수양하라”고 말하였다.²⁸⁾

이상으로 볼 때 천도교의 여성운동은 사람성 발전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남성

27) 「앞으로 나아갑시다」, 《신여성》, 1926.5.

28) 김명호, 「현대여성의 수양」, 《신여성》, 1926.7.

과 같이 여성의 권리와 의무도 꼭 같다는 의식의 각성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사상적 고민을 통한 사상과 감정 체계를 확립하여 자기와 싸우고 사회와 투쟁할 것이며 직업을 가져 독립생활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모든 실력과 지식, 도덕과 정치, 경제적 지식은 모두 동원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였다. 이러한 일제하의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호주제 폐지는 여성의 독립성과 양성평등을 주장한 조상들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며, 여성운동의 역사적 흐름의 발전을 관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결 론

우리 사회가 법률상으로 남성에게만 호주제 권한을 부여하여 성차별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커나가는 여아에 대하여는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무시되는 것으로 이를 경험하는 여아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인생의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를 경험하지 못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기분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의 개선만으로 국민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전통적인 여성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법률자체부터라도 남녀아동 모두를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개방적인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에서는 점차적으로 남성 중심의 성차별을 당하지 않고 남녀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양성평등의 사회로 다가설 것이다. 호주제는 양성평등적 인간관에 터한 전통사상과 이를 계승한 천도교의 인간이해와 결부시켜 볼 때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폐기물이다.

앞으로 진정한 인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분리와 차별이 아닌 양성결합과 평등적 교육관에 의하여 교육되어질 것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환경에서 흔히 일어나는 남녀아동 차별악습부터 없애나가야 한다. 이는 인간 완성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이래로 분리와 차별에 의한 지배정복의 역사를 극복하는데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의 상징적 의미는 여성과 남성이 상생상존(相生共存)하며 자연환경과 인간이 하나의 생명공동체로서 평화의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주역」, 「시경」, 「성서」, 「삼국유사」, 「삼국사기」
 「동경대전」, 「용담유사」, 「해월신사법설」
 《신여성》, 《부인》, 《여자지남》, 《독립신문》
 고영진, 15·16세기 주자가례의 시행과 그 의의, 《한국사론》 21, 1989.
 ———, 「조선 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권상로, 「퇴경당전집」 8권, 퇴경당권상로박사전집간행위원회, 1990.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II),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호주제 폐지와 대안 모색을 위한 대 토론회 자료집, 2000.
 양현아, 한국 가족법에서 읽은 세 가지 문제, 한국사회사학회, 「가족과 법제의 사회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이영춘, 종법의 원리와 한국 사회에서의 전통, 한국사회사학회, 「가족과 법제의 사회사」,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5.
 이우정, 「여성들을 위한 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86.
 이진분, 「성평등문화를 여는 교육」, 또하나의 문화, 1995.
 송인자, 개화기 여성교육론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3.
 전국교사협의회, 「학교교육과 성차별」, 미래사, 1989.
 정광호, 古代 宗法制의 社會史的 意義, 《人文科學研究所論文集》 7, 인하대학교, 1981.12.
 정혜정, 「동학에 나타난 侍天의 인간관과 교육이념」, 「동학연구」 9, 2001.
 최남선, 「육당최남선전집」 2, 현암사, 1975.
 프리드리히 엥겔스, 김대웅역, 「가족의 기원」, 아침, 1985.
 한국여성연구회 편, 「한국여성관계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7-1990.
 홍찬숙, 엥겔스의 여성억압분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8.
 C.S.Hall & V.J.Nordby, 최현 역, 「융심리학 입문」, 범우사, 1985
 田上太秀, 「佛教と性差別」, 東京書籍株式會社, 1992.

Abolishing the System of the Head of a Family through of Human View in Chondokyo

Jung, Hye-Jung

(The lecturer of Dongguk University)

《Abstract》

Now legally, The system of the head of a family is contrary to human view of Chondokyo. The system of the head of a family oppresses individualization and autonomy of people, and various system of family, and various life. That is to say, the system of the head of a family disturbs people in inside growth of bisexuality and in growth of Hanulnim. Also the system of the head of a family is not fit for traditional thought native to Korea. In our tradition, there is not only history of sexual discrimination but also tradition of equality in both of sexes.

Key words : the system of the head of a family, abolishing the system of the head of a family, Chondokyo, Hanulnim, inside growth of bisexuality.